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박상혁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윤영희 의원입니다.
- 최근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, 특히 브레이크 없이 움직이는 픽시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, 저는 한 아이의 부모로서, 또 서울시의원으로서 깊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
- 속도를 줄이지도, 멈추지도 못하는 그 위험한 자전거 위에서 있는 것은 단지 ‘학생’이 아니라, 바로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. 그 아이들이 아무런 보호 없이 거리의 위험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.
- 더욱이, 지난 2025년 7월 서울 관악구의 한 이면도로

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탑승하던 중 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.

- 학교가 분명한 기준과 권한을 갖고 학생들에게 위험성을 가르치고, 잘못된 통행과 탑승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지만, 현행 조례는 이러한 위험한 이용 행위를 학교가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
- 그래서 저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, 그러한 탑승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
- 단순히 ‘하지 말라’고 말하는 교육이 아니라, 왜 위험한지, 어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,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,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드는 일입니다.
-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,

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지역구를 대표하기 위해서만이 아닐 것입니다. 우리의 공통된 책무는 서울의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. 이번 개정조례안은 규제를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.

- 다만 아이들이 위험한 도로 한복판에서, “멈출 수 없는 자전거” 위에 서 있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작은 노력입니다. 그러나 그 작은 변화가 한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, 한 가정의 눈물을 막을 수 있습니다.
-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, 본 개정조례안이 학생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.